

제 3과 어휘(1)

집중 탐구

1

刻骨難忘	各樣各色	角者無齒
刻舟求劍	甘言利說	改過遷善
居安思危	牽強附會	見利思義
見危致命	結者解之	結草報恩

풀이

- 刻骨難忘(각골난망): 뼈에 새겨서 잊지 않음. →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않음.
- 各樣各色(각양각색):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빛깔.
- 角者無齒(각자무치):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음. →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음.
- 刻舟求劍(각주구검): 배에 새겨서 칼을 찾음. →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.
- 甘言利說(감언이설):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.
- 改過遷善(개과천선): 허물을 고쳐 착한 것으로 옮겨 감.
- 居安思危(거안사위):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울 때를 생각함.
- 牽強附會(견강부회): 끌어서 억지로 붙여 맞춤.
- 見利思義(견리사의): 이득을 보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함.
- 見危致命(견위치명): (나라가) 위태로움을 보면 (자기의) 목숨을 바침.
- 結者解之(결자해지): (일을)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함.
- 結草報恩(결초보은):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음.

유래

- * 刻舟求劍: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.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. 이와 같이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옛 생각만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함.
- * 結草報恩: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위과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첩을 재혼시켜 아버지를 따라 죽지 않게 하였다. 그 뒤 싸움터에서 그 첩의 아버지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묶어 적을 넘어뜨려 위과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刻 각 새기다
遷 천 옮기다

樣 양 모양
牽 견 끌다

舟 주 배
附 부 붙다

劍 검 칼



鷄卵有骨 孤立無援 孤掌難鳴
 苦盡甘來 過猶不及 矯角殺牛
 教學相長 口蜜腹劍 九死一生
 九牛一毛 群鷄一鶴 勸善懲惡

풀이

- 鷄卵有骨(계란유골): 계란에도 뼈가 있음(꿩알음). →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 됨.
- 孤立無援(고립무원):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.
- 孤掌難鳴(고장난명): 외손뼉으로는 울리기가 어려움. →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.
- 苦盡甘來(고진감래):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. →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.
- 過猶不及(과유불급):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.
- 矯角殺牛(교각살우): (소의)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임. →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.
- 教學相長(교학상장):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성장시킴.
- 口蜜腹劍(구밀복검): 입에는 꿀이 있으나 배 속에는 칼이 있음. →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.
- 九死一生(구사일생):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.
- 九牛一毛(구우일모): 아홉 마리 소 털 중에서 한 가닥의 털. →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.
- 群鷄一鶴(군계일학): 무리의 닭 가운데 한 마리의 학. →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.
- 勸善懲惡(권선징악):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.

유래

* 鷄卵有骨: 황희 정승이 매우 가난하여 세종 대왕이 하루 동안 남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진상품을 모두 황희에게 주도록 하였다. 그러나 매마침 그날 비가 와서 진상품이 하나도 없었으며 결국 계란 한 판을 받게 되었다. 그런데 그 계란도 굵아서 먹을 수 없었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孤 **고** 외롭다

蜜 **밀** 꿀

懲 **징** 징계하다

援 **원** 돕다

腹 **복** 배

掌 **장** 손바닥

群 **군** 무리

矯 **교** 바로잡다

鶴 **학** 학



近墨者黑	錦上添花	錦衣還鄉
金枝玉葉	難兄難弟	老馬之智
多多益善	多事多難	斷金之交
大器晚成	大同小異	獨不將軍

풀이

- 近墨者黑(근묵자흑):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됨. →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.
- 錦上添花(금상첨화): 비단 위에 꽃을 더함. →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.
- 錦衣還鄉(금의환향):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옴. →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.
- 金枝玉葉(금지옥엽): 금 가지에 옥 잎사귀. → 임금의 가족, 또는 귀한 자손을 이룸.
- 難兄難弟(난형난제):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 하기도 어려움. →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.
- 老馬之智(노마지지): 늙은 말의 지혜. →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.
- 多多益善(다다익선):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.
- 多事多難(다사다난):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.
- 斷金之交(단금지교): 쇠를 자를 정도의 사귄.
- 大器晚成(대기만성):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짐. →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.
- 大同小異(대동소이): 크게 같고 작게 다름. →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.
- 獨不將軍(독불장군): 혼자서는 장군을 못함. →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.

유래

* 老馬之智: 제나라 환공이 고죽국을 정벌하러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. 이때 관중이 '늙은 말의 지혜'가 필요하며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 놓았다. 그리고 전군이 그 뒤를 따라가 마침내 길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錦 금 비단
斷 단 끊다

添 첨 더하다
器 기 그릇

還 환 돌아오다

智 지 지혜



東問西答	同病相憐	同床異夢
登高自卑	登龍門	燈下不明
離合集散	馬耳東風	莫上莫下
望雲之情	麥秀之歎	滅私奉公

풀이

- 東問西答(동문서답):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하다. →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.
- 同病相憐(동병상련):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.
- 同床異夢(동상이몽): 같은 침상의 다른 꿈. →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.
- 登高自卑(등고자비):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함. →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.
- 登龍門(등용문): 용문을 오름. →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함. 또는 그러한 관문.
- 燈下不明(등하불명): 등잔 밑이 밝지 않음. →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.
- 離合集散(이합집산): 헤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짐.
- 馬耳東風(마이동풍): 말 귀에 봄바람. →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.
- 莫上莫下(막상막하): 위도 없고 아래도 없음. →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.
- 望雲之情(망운지정):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. →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.
- 麥秀之歎(맥수지탄): 보리만 무성함을 탄식함. →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.
- 滅私奉公(멸사봉공):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적인 것을 받들.

유래

- * 登龍門: 중국 황하강 상류에 용문의 물살이 너무 세서 물고기들이 이곳을 통과하면 용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.
- * 望雲之情: 당나라 사람 적인걸이 타향살이를 할 때, 태항산에 올라 흰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며 옆 사람들에게 내 고향집이 저 아래 있다면서 오래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하였다는 데서 유래.
- * 麥秀之歎: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憐 련 불쌍히 여기다
龍 룡 용

床 상 침상
離 리 헤어지다

夢 몽 꿈
歎 탄 탄식하다

卑 비 낮다
滅 멸 없애다

제 4과 어휘(2)

집종탐구

1

明若觀火	目不識丁	目不忍見
無爲徒食	聞一知十	門前成市
尾生之信	拔本塞源	發憤忘食
背水陣	白眉	伯牙絕絃

풀이

- 明若觀火(명약관화):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같음. →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고 뻔함.
- 目不識丁(목불식정): 고무래를 보고도 ‘丁’ 자임을 알지 못함. →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. 또는 그런 사람.
- 目不忍見(목불인견):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.
- 無爲徒食(무위도식):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함.
- 聞一知十(문일지십): 하나를 듣고 열을 앎.
- 門前成市(문전성시): 문 앞이 시장을 이룸. →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.
- 尾生之信(미생지신): 미생의 믿음. →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.
- 拔本塞源(발본색원):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음.
- 發憤忘食(발분망식): 힘써 노력하여 먹는 것조차 잊음.
- 背水陣(배수진): 물을 등지고 치는 진. →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리설 수 없음.
- 白眉(백미): 흰 눈썹. →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伯牙絕絃(백야절현): 백야가 거문고 줄을 끊음. →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.

유래

- * 尾生之信: 미생이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한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홍수에도 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데서 유래.
- * 背水陣: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하여 조(趙)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.
- * 白眉: 마씨의 다섯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.
- * 伯牙絕絃: 자신의 연주를 잘 감상해 주던 친구 종자기가 죽자 백야가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拔 발 뽑다

塞 색 막다

源 원 근원

憤 분 힘쓰다

背 배 등지다

陣 진 진 치다

眉 미 눈썹

伯 백 만

牙 아 어금니

絃 현 줄



白眼視	百折不屈	不問曲直
不恥下問	附和雷同	事必歸正
山戰水戰	殺身成仁	三人成虎
相扶相助	桑田碧海	塞翁之馬

풀이

- 白眼視(백안시): 흰자위로 봄. →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.
- 百折不屈(백절불굴): 백 번 꺾여도 굽히지 않음.
- 不問曲直(불문곡직):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.
- 不恥下問(불치하문):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.
- 附和雷同(부화뇌동): 불쫓아 어울리고 우레처럼 따름. →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.
- 事必歸正(사필귀정):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.
- 山戰水戰(산전수전): 산에서 싸우고 물에서 싸움. →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음.
- 殺身成仁(살신성인):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(仁)을 이룸.
- 三人成虎(삼인성호): 세 사람이면 (없던) 호랑이도 만들어 냄. →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.
- 相扶相助(상부상조): 서로 돕고 서로 도움.
- 桑田碧海(상전벽해):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됨. →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.
- 塞翁之馬(새옹지마): 변방 늙은이의 말. →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.

유래

- * 白眼視: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이 반갑지 않은 손님을 백안(白眼)으로 대하고, 반가운 손님은 청안(靑眼)으로 대한 데서 유래.
- * 塞翁之馬: 옛날 변방 노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. 그 후에 달아났던 말이 빠르게 잘 달리는 말 한 필을 끌고 와서 잃어버린 말도 찾고 좋은 말 한 마리까지 더 얻게 되었다. 그러나 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. 그로 인해 아들은 전쟁에 끌려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折 절 꺾다
雷 리 우레

屈 굴 굽히다
桑 상 뽕나무

恥 치 부끄러워하다
鶩 벽 푸르다

附 부 붙다
翁 웅 늙은이



先見之明	先公後私	雪上加霜
說往說來	小貪大失	束手無策
首丘初心	手不釋卷	唇亡齒寒
是非之心	我田引水	安分知足

풀이

- 先見之明(선견지명): 앞을 내다보는 지혜.
- 先公後私(선공후사): 공을 먼저하고 사를 뒤에 함.
- 雪上加霜(설상가상):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짐. →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.
- 說往說來(설왕설래): 말이 가고 말이 옴. →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.
- 小貪大失(소탐대실):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.
- 束手無策(속수무책): 손을 묶은 것처럼 대책이 없음.
- 首丘初心(수구초심): 고향 언덕 쪽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감. →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.
- 手不釋卷(수불석권):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함.
- 唇亡齒寒(순망치한):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림. →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.
- 是非之心(시비지심):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.
- 我田引水(아전인수): 자기의 밭에만 물을 댈. →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.
- 安分知足(안분지족):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족함을 앎.

유래

- * 首丘初心: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데서 유래.
- * 唇亡齒寒: 춘추 시대 진나라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 궤나라를 치고자 하여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궁지기가 궤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입술과 이와 같아서 둘 중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 하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貪 탐 탐내다
釋 석 놓다

束 속 묶다
唇 순 입술

策 책 피

丘 구 언덕



安貧樂道	眼下無人	羊頭狗肉
語不成說	漁父之利	言語道斷
與民同樂	易地思之	緣木求魚
五里霧中	鳥飛梨落	溫故知新

풀이

- 安貧樂道(안빈낙도):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김.
- 眼下無人(안하무인): 눈 아래 사람이 없음. →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.
- 羊頭狗肉(양두구육):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. →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.
- 語不成說(어불성설): 말이 이야기를 이루지 못함. →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.
- 漁父之利(어부지리): 어부의 이득. →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.
- 言語道斷(언어도단): 말의 길이 끊어짐. →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.
- 與民同樂(여민동락): (임금이) 백성과 함께 즐김.
- 易地思之(역지사지):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.
- 緣木求魚(연목구어):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음. →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.
- 五里霧中(오리무중): 5리를 덮은 안개 속. →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.
- 鳥飛梨落(오비이락): 까마귀가 날아가자 배가 떨어짐. →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.
- 溫故知新(온고지신):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앎.

유래

* 漁父之利: 도요새가 무명조개의 속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넣는 순간 무명조개가 껍데기를 꼭 다물고 부리를 놓아 주지 않았다. 때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이 둘을 잡아 이익을 얻었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狗 구 개
裂 리 배

斷 단 끊다

緣 연 오르다

霧 무 안개

제 5과 어휘(3)

집종탐구

1

外柔內剛	欲速不達	龍頭蛇尾
愚公移山	牛耳讀經	優柔不斷
有口無言	有備無患	類類相從
二律背反	一舉兩得	一罰百戒

풀이

- 外柔內剛(외유내강):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속은 굳셈.
- 欲速不達(욕속부달): 빨리하려고 하면 (오히려) 이르지 못함.
- 龍頭蛇尾(용두사미):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. →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함.
- 愚公移山(우공이산): 우공이 산을 옮김. →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.
- 牛耳讀經(우이독경): 쇠 귀에 경 읽기. →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.
- 優柔不斷(유유부단):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하지 못함.
- 有口無言(유구무언): 입은 있으나 말은 없음. →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.
- 有備無患(유비무환):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음.
- 類類相從(유유상종): (같은) 무리끼리 서로 좇음.
- 二律背反(이율배반): 두 가지 규율이 서로 배반됨. →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.
- 一舉兩得(일거양득):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.
- 一罰百戒(일벌백계): 한 사람을 처벌해서 백 사람을 경계함. →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함.

유래

* 愚公移山: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했다. 이에 감동한 하느님이 산을 옮겨 주었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剛 강 굳세다

龍 룡 용

蛇 사 뱀

愚 우 어리석다

優 우 주춤거리다

斷 단 끊다

類 류 무리

背 배 등지다

罰 벌 벌주다

戒 계 경계하다



一石二鳥	日就月將	臨機應變
自強不息	自畫自讚	長蛇陣
前代未聞	切齒腐心	漸入佳境
朝變夕改	朝三暮四	鳥足之血

풀이

- 一石二鳥(일석이조): 하나의 돌(을 던져) 두 마리 새(를 얻음). →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.
- 日就月將(일취월장): 나날이 나아가고 다달이 나아감.
- 臨機應變(임기응변): 어떤 일을 임하여 (적절하게) 반응하고 변통함. →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.
- 自強不息(자강불식): 스스로 힘써 쉬지 아니함.
- 自畫自讚(자화자찬):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함.
- 長蛇陣(장사진): 긴 뱀처럼 치는 진. →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.
- 前代未聞(전대미문): 지난 시대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음.
- 切齒腐心(절치부심):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힘.
- 漸入佳境(점입가경):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장소임. → 일이 점점 재미있는 지경으로 들어감.
- 朝變夕改(조변석개):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침. →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.
- 朝三暮四(조삼모사):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. →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.
- 鳥足之血(조족지혈): 새 발의 피. → 매우 적은 분량.

유래

* 朝三暮四: 중국 송나라 저공이 먹이를 아침에 세 개,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하는 말에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냈다. 그래서 아침에 네 개,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고 하자 좋아했다는 데서 유래.



한자 익히기

臨 림 임하다

切 절 갈다

機 기 때

腐 부 썩다

息 식 쉬다

漸 점 점점

讚 찬 칭찬하다

境 경 장소

陣 진 진 치다